

우리 문화의 맥을 살리자

정수현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



그 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모습 을 들여다 보노라면 마치 까마귀 가 허연 페인트를 뒤집어쓰고 백로 행 세를 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 몸 은 분명 한국인인데 생각과 행동은 서 구인을 닮아가고 있고, 의식주를 비롯 한 일상생활도 서구적인 것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역사를 배울 때 한민족이 유구한 문화 적 전통을 지닌 민족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라왔다. 삼국시대의 고분벽 화, 통일신라의 불교문화, 고려의 상감 청자, 세종대왕 때의 선구적 과학기술 등을 떠올리며 우리는 서양보다 훨씬 앞선 문화적 전통을 지녔다는 자긍심 을 가졌다. 그러나 이런 자긍심은 공허 한 메아리에 그치고 실제 생활에서는 온통 서구의 것을 흉내내는 데 급급해 하고 있다.

우리의 전통의상인 한복은 명절 때 나 입는 회귀 의복으로 변해 어찌다 한 복 입은 사람을 보면 회한하다는 눈초 리를 보낸다. 청소년들은 햄버거, 스파 게티, 피자, 캔터키치킨 같은 음식에 익숙해져서 된장찌개나 김치를 싫어하 는 아이들이 생겼다고 한다. 이웃끼리 담 너머로 정을 나누던 주거환경은 대 부분 아파트로 대치되어 이웃이 누구 인지도 모르는 삭막한 공간으로 바뀌 었다. 이렇듯 의식주에서 서구적인 모 습을 좇다보니 우리의 생각과 행동도 자연스럽게 서양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모 양이다. 과거의 불교나 유교 문화를 애 기하려고 하면 무슨 케케묵은 벽장 속 의 먼지 묻은 물건을 꺼내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컴퓨터나 첨단과학을 얘기하 야 대우받고, 말도 컨센서스니 인프라 니 하며 영어 단어를 써야 유식한 사람

으로 여긴다.

이런 경향은 지식인 계층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학자들은 우리 것을 저멀리 던져 버리고 주로 서양의 학문을 소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좀 심하게 비유하면 서구의 지식을 한국에 전파하는 전도사라고 할까. 학자들의 수많은 저술은 우리 것이나 자기의 이론을 다루지 않고 외국 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거나 번역해 놓은 것들 투성이다. 그래서 일설에는 서양의 학자들이 한국인 제자를 두기 좋아한다는 말도 들린다. 한국 유학생들은 서양의 이론을 배웠다 하면 한국에 돌아가 그대로 써먹으니 자신의 이론을 검증할 아주 좋은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라나.

우리 사회가 이처럼 온통 서구화를 지향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다. 해방 이후 들이닥친 서구의 문물은 분명 우리것보다 발전된 것이었고, 우리는 가난과 무지를 타파하기 위하여 서양의 과학기술을 배워야만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단시일 내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 과속 성장의 부작용으로 지금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지만, 서구 문물이 우리의 생활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맹목적인 서구 모방은 우리의 문화적 맥을 끊어 버린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리의 과거를 모두 부정하고 무(無)로

돌리려는 태도는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서구의 것을 배우고 흉내 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디까지나 한국인이다. 앞에서 까마귀 얘기를 했는데 까마귀가 몸을 하얗게 칠하고 백로의 흉내를 내도 결코 백로가 될 수는 없는 법이다. 심리학자인 칼 융의 표현을 빌면 사람에게는 머나먼 과거의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한국인에게는 과거 수천 년 세월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민족적 전통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내면에는 한국인으로서의 뿌리깊은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어서 아무리 서양의 문화를 배우고 서구적인 모습으로 변해도 근본적으로 서구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전통적인 문화의 맥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서구화만 추구하는 것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위해서나,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다. 우리가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를 스스로 부정해 버린다면 세계시장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또한 우리의 무의식에 깊숙이 뿌리내린 민족적 전통을 내던진 채 서양 것만 배워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바둑계의 상황을 예로 들어 함께 생각해 본다.

바둑은 삼황오제 시절에 창안되었다

고 전해지는 동양의 오묘한 놀이문화이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의 고상한 취미로 여겨져 오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두뇌개발과 정서순화에 도움이 되는 문화적 이기(利器)로서 아동에 대한 교육적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중국에서 고안되어 우리나라에 도입된 바둑은 백제 때 일본에 전파되었고, 이후 일본 바둑은 300여 년 전부터 정부의 후원 아래 기술적으로 활발한 연구를 한 결과, 20세기에 가장 찬란하게 꽃을 피웠다.

우리는 조선 시대에 순장바둑이라는 고유의 방식을 사용하여 자유분방하게 전투를 벌이는 스타일로 정착되었는데, 일본 바둑은 합리적인 이론에 기초하여 돌의 능력과 모양을 중시하는 우아한 유형이었다. 그런데 일제 침략과 함께 일본 바둑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전통적인 순장바둑이 위협을 받게 되었다. 어떤 이유에선지 일본 바둑이 선진화된 양식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해방 후 바둑계는 돌연 순장바둑을 폐지하고 일본식 바둑을 두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우리 바둑의 맥을 차단한 불행한 사건으로서, 마치 우리의 유교적 사상을 낫은 것으로 보고 서양철학을 우월하다고 본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 후 우리는 일본 바둑을 흠모하고 열심히 모방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프로 기사들의 대국보를 연구하고, 일본 책을 공부하고, 실전에서 일본 바둑을

흥내내려고 애를 썼다. 조남철, 김인, 윤기현, 조훈현, 하찬석 등 일본 유학파들이 주름잡던 1980년대 중반까지 우리의 독자적인 유형이나 이론 같은 것은 거의 없었고, 심지어는 잡지에 문제를 내는 것도 일본 것을 베끼기 일쑤였다. 서양의 학문을 배우고 방식을 흉내내기에 바쁜 오늘의 현실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당시의 우리 모습을 일본인은 어떻게 보았을까? 자기네 것만 따라하는 한국 바둑을 제대로 인정해 줄 리 만무하였고, 한국 기사들은 엄청난 푸대접을 받았다. 일본에서는 한국 바둑을 형편없는 것으로 평가하여 여러 개의 바둑 잡지에서 한국 바둑에 대한 글을 한 줄도 써 주지 않을 정도로 무시했다. 아마 우리가 일본 바둑을 배우면서도 독자적인 무엇인가를 내놓아 흥미를 끌었다면 그렇게 인색하게 굴지는 않았으리라. 오늘날 서양의 학자들이 우리 학계를 보는 시각이 어떠할까를 여기서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설움받던 시절은 한국 바둑이 1990년대에 세계 바둑계를 석권하면서 끝나게 되었다. 바둑계의 스타들이 질풍노도처럼 국제기전을 휩쓸면서 일본을 비롯한 세계 바둑계는 한국 바둑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일본 매스컴에서는 한국의 어린이 바둑교실과 명지대 바둑학과를 취재하여 방송까지 하였다. 격세지감이 있는 이런 상황이 전개된 것은 물론 한국 기사들의 대활

약 덕분이라고 하겠는데, 그렇다면 한국 기사들이 짧은 시간에 세계를 제패하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 나는 한국 기사들이 잃어버렸던 순장바둑의 전통적 맥을 부활시켰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한국 바둑의 대표인 조훈현, 서봉수, 이창호, 유창혁 중에서 조훈현을 제외한 나머지 3인은 모두 한국에서 바둑을 연마했다. 이들은 모양과 이론에 집착하는 일본 바둑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수가 있는 곳이면 모양이 나쁘고 이론에 다소 안 맞더라도 수를 추구한다는 방식을 터득하였다. 순장바둑의 자유분방한 전투적 기질이 이어지고 있는 지방에서 주로 바둑의 기초를 다진 이들 국산파들은 일본식 바둑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기술을 터득했고, 이것이 세계를 제패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외관상 끊어졌던 순장바둑의 맥을 살림으로써 그 동안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던 일본 바둑을 능가하게 되었다. 이들이 의식하지는 못했지만 내면 속에 살아 있던 우리 문화적 전통의 맥이 되살아나 결국 세계 최강국으로 올라서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 셈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서 개발한 정석이 세계 바둑시장의 인기상품으로 등장하였다. 이 중에는 모양이 투박하고 기묘한 느낌이 들게 하는 것도 있는데, 종래의 일본식 이론에서 보면 정석으로 보기 어려운 것도 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거부하던 일본 기사들도 요즘은 한국식 정석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고, 전 세계의 아마추어들도 한국식 정석의 색다른 맛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지금까지 바둑계의 얘기를 늘어 놓았는데, 이는 우리 문화의 방향에 대한 하나의 시사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가 서양의 문화를 무조건 모방만 하고 독자적인 문화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업신여김의 대상이 될 뿐이며, 영원히 문화적 예속상태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의 철학, 역사, 예술, 기술, 의학 등의 맥을 살려서 여러 분야에 적용할 때 세계인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다. 사실 서구 문화가 더 우월하다는 선입관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우리의 문화유산에 바라본다면 의외로 훌륭한 것이 많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여 자신의 분야에 접목한다면 외국인이 흉내낼 수 없는 독창적인 이론을 전개할 수 있고, 이런 배경에서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는 학문적 탄생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

정수현/한양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 예체능대학 바둑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학과장을 맡고 있다. 재단법인 한국기원 프로기사 9단으로 한국프로기사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 『반상의 파노라마』, 『정통 바둑 입문』, 『고급 바둑 전술』 등이 있고, "기력의 이론", "현대 포석 이론"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